

#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氣”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sup>1</sup>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sup>2</sup>  
金宣亨<sup>1</sup> · 方正均<sup>2</sup> \*

## A Study on "Due to pathogenic Gi(因於氣)" in 『Somun(素問)·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Kim Sun-hyung<sup>1</sup> · Bang Jung-kyun<sup>2</sup> \*

<sup>1</sup>Dept. of Sasang Constitution Kyung-Hee East-West Neo medical center

<sup>2</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It is difficult that we understand "Due to pathogenic Gi(因於氣)" in 『Somun(素問)·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because that is too many comments. We are to interpret Gi(氣) as Wind(風) or Anger(怒). However, the most reasonable explanation is to Yang-Gi weakness(陽氣虛). In other words, pathogenic Gi of four seasons should violate Yang-Gi(陽氣) and become a Yang-Gi weakness.

Sayu(四維) can be interpreted as limbs[四肢], the last month of each of the four seasons[四季], four seasons[四時]. It is a logical view of the four seasons. This meaning is that it was already Yang-Gi weakness state by pathogenic-Gi of four seasons which violate Yang-Gi(陽氣), again the pathogenic Gi of four seasons violate Yang-Gi. As a result Yang-Gi will drain.

**Key Words** : Due to pathogenic Gi(因於氣), Saenggitongcheonron(生氣通天論), Yang-Gi weakness(陽氣虛), four seasons(四時)

## I. 緒論

『黃帝內經』은 韓醫學의 寶庫이다. 수많은 醫家들이 『內經』에서 醫學적 啓發을 얻었고, 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 『內經』은 과거의 서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책이다. 즉, 현재도 여전히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해져 오는 과정에 失傳과 校正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 중간 본 모습이 훼손된 경우가 있다. 또 많은 醫家들이 注를 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후세 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氣, 爲腫, 四維相代, 陽氣乃竭” 구절도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諸家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原文에 대한 해석이 녹록치 않다. 이에 諸家들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본 문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 교신저자 : 方正均.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강원 원주시 우산동 660 번지.  
E-mail : jkbang@sangji.ac.kr Tel : 033-730-0666.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모색해 보았다.

## II. 本論

『素問』은 대부분 黃帝와 岐伯의 問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素問·生氣通天論』은 특이하게 黃帝와 岐伯이 각각 자신의 醫學觀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黃帝와 岐伯의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黃帝는 주로 陽氣 위주로 인체를 설명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를 陽氣의 盛衰여부에서 찾고 있다. 이에 비해 岐伯은 陰陽의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陰陽의 부조화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生氣通天論」에는 黃帝와 岐伯의 相異한 論술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黃帝는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陽氣와 外邪의 관계를 중요시 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是故陽因而上, 衛外者也. 因於寒,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軟短, 小筋弛長, 軟短爲拘, 弛長爲痿. 因於氣, 爲腫, 四維相代, 陽氣乃竭. ((사람에게 있어) 陽氣는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아, 陽氣가 제 자리를 잃으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수명을 꺾어버려(생명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하늘의 운행이 마땅히 해에 의해 빛나고 밝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의 陽氣가 하늘의 기운을 따라 위로 올라가 밝을 호위하는 것이다. 寒邪에 因하면(침습당하면) 행동을 문지도리를 움직이듯 해야 하는데, 행동이 갑작스럽고 신중하지 못하여 놀랄 때처럼 하면 神氣가 이에 뜨게 된다. 暑邪에 因하면 땀이 나고, 가슴이 달아오를 때는 숨을 헐떡이며 고요할 때는(조급한 것이 사라지면) 말을 많이 하며 몸이 달구어진 듯처럼 熱이 나는데, 땀이 나면서 풀리게 된다. 濕邪에 因하면 머리가 무엇으로 싸맨 것과 같으니, 濕이 울체되어 생긴 熱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힘줄은 오그라들어 짧아지고 작은 힘줄은 풀어져 길어진다. 오그라들어 짧아지는 것은 굽어지는 것이고, 풀어져 길어지는 것은 시드는 것이다. (邪氣의 침습을 받아) 陽氣가 虛한 것에 因하면 붓는 증상이 된다. (이 상태에서) 四時의 邪氣가 다시 陽氣를 침습하게 되면, 陽氣가 이에 고갈되어버린다.)<sup>1)</sup>

이 문장에서 기술된 陽氣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까지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寒暑濕 등의 邪氣가 야기하는 病症의 경우, 각각 그 邪氣에 의해 유발되는 전형적인 病症으로 오늘날까지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문장은 몇몇 구절의 경우 역대 醫家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석을 함에 있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因於氣, 爲腫, 四維相代, 陽氣乃竭”의 구절에 있어서도 諸家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氣”와 “四維”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이 많다. 또한 陽氣가 고갈되는 病理機轉과 관련된 논쟁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존의 논쟁을 정리하고, 논자의 견해를 밝혀보기로 한다.

### 1. 因於氣, 爲腫

王冰은 “因於氣”에 대해서 평소에 항상 氣疾이 있는 상태에서 濕熱이 더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王冰의 해석은 지나치게 의미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因於氣”라는 3 글자 안에 濕熱이 더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잠시 유보하고, 王冰의 주장대로 평소 氣疾을 앓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因於氣”의 氣는 陽氣가 虛한 상태를 뜻한다. 즉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濕熱이 더해져 腫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째서 六氣 가운데 유독 濕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

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  
“素常氣疾, 濕熱加之, 氣濕熱爭, 故爲腫也.”

熱이 더해지는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陽氣가 고갈되는 것과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濕邪로 인해 발생하는 병증을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因於濕, 首如裹, 濕熱不攘, 大筋軟短, 小筋弛長.”과 같이 濕熱이 筋을 주로 손상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본 문장과 같이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濕熱이 침습하여 筋骨血肉의 四維에 腫이 생기면서 陽氣가 고갈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王冰은 濕邪가 침습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筋을 손상하는 경우와, 陽氣가 虛한 상태일 때 침습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濕邪의 침습은 그 病症이 筋을 손상시키는 정도에서 그치지않고, 陽氣가 虛한 상태에 濕邪가 침습하면 陽氣가 고갈될 정도로 위중한 병증이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章楠도 王冰과 마찬가지로 濕邪가 침습하는 경로를 2가지로 구분하면서, 濕邪가 筋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고 본 문장에서처럼 陽氣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氣를 陽氣라고만 하였으니, 陽氣虛로 인식한 王冰의 설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吳崑은 “氣”를 濕邪가 변화하여 발생한 蒸騰之氣라고 하였으니<sup>4)</sup>, 濕熱邪에 의해 腫이 발생한다고 본 것은 王冰·章楠과 같다. 그러나 吳崑은 氣를 邪氣로 인식하고 있으니, 인체의 正氣와 관련된 王冰·章楠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張琦는 “因於氣”를 陽氣虛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 王冰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다만, 張琦는 陽이 虛한 상태에서 四時의 氣가 올라가면 陽氣가 고갈된다고 하여<sup>5)</sup>, 陽氣가 고갈되는 병리기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한편, 『黃帝內經太素』에는 원문이 “因陽氣爲腫”으로 되어 있으니, 陽氣의 기능 이상으로 腫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3) 章楠 編注. 靈素節注類編.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06.  
“因于氣爲腫者, 其濕不傷筋而傷陽氣也, 蓋脾爲太陰濕土, 而主肌肉, 濕邪傷陽而脾困, 則肌肉腫矣.”  
4)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2.  
“氣, 蒸騰之氣, 濕熱所化也. 病因于氣, 則血脈壅滯而爲浮腫.”  
5) 張琦 著.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8.  
“陽虛而厥氣乘之, 則爲痞滿腫脹之疾. 四維, 四時也. 本陽虛而爲四時寒暑濕氣所乘, 則陽氣竭絕.”

이에 대해 楊上善은 邪氣가 分肉사이에 침습을 하게 되면 衛氣의 運行이 막혀 腫이 발생한다고 하였다<sup>6)</sup>. 張志聰은 이상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문장을 앞 문장의 寒暑濕 邪氣가 인체를 침습한 내용을 총결한 것으로 보았다. 즉, 그는 寒暑濕의 外邪 침습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氣를 傷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sup>. 한편, 張介賓은 衛氣·營氣·藏府之氣를 氣로 인식하면서, 이들 氣 가운데 하나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sup>8)</sup>. 高士宗은 “氣”를 風으로 이해하면서 風邪가 성행할 경우 未疾이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風邪에 의해 四肢의 腫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이에 대해 丹波元簡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sup>10)</sup>, 胡天雄은 腎風의 증상을 예로 들면서 高士宗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sup>11)</sup> 『黃帝內經素問校釋』에서도 風으로 보고 있다<sup>12)</sup>. 한편, 馬蒔는 “氣”를 七情의 氣, 구체적으로 怒氣로 이해하고 있다<sup>13)</sup>.

6) 李克光, 鄭孝昌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p.70-71.  
“因邪氣客於分肉之間, 衛氣壅遏不行, 遂聚爲腫.”  
7)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0.  
“此總結上文而言, 因外淫之邪, 有傷于氣則爲腫矣.”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389.  
“因于氣者, 凡衛氣營氣藏府之氣, 皆氣也, 一有不調, 均能致疾.”  
9)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6.  
“氣, 猶風也. 「陰陽應象大論」云, 陽之氣, 以天地之疾風名之, 故不言風而言氣. 因于氣爲腫者, 風淫未疾, 四肢腫也.”  
10) 丹波元簡 編.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  
“簡按高云, 氣猶風也. 陰陽應象云, 陽之氣以天地之疾風名之. 故不言風而言氣. 因于氣爲腫者, 風淫未疾, 四肢腫也. 此注難從.”  
11)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3.  
“天雄按, 『廣雅·釋言』風, 氣也. 可見古代風氣二字可通用. 詳考文義, 四介因于, 指四時之氣, 上文已言因于寒, 因于暑, 因于濕, 則此處作因于風, 實無疑義, 因于風爲腫者, 如面胗癩然, 爲腎風之類, 高注爲是.”  
1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4.  
“因于風, 可致浮腫.”  
1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0.  
“因于氣證所致者, 凡怒則傷肝, 肝氣有餘, 來侮脾土, 脾土不能制水, 水氣泛溢于四肢, 而爲腫脹之疾.”

## 2. 四維相代, 陽氣乃竭

四維에 대한 인식은 筋骨血肉·四肢·四時·四季 등으로 諸家の 주장이 동일하지 않다. 먼저 王冰은 邪氣가 점차 盛해지고 正氣는 점차 微해져서 筋骨血肉이 번갈아 가면서 손상을 입는 것을 “四維相代”로 설명하면서, 邪氣가 正氣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陽氣의 고갈로 표현하였다<sup>14)</sup>. 吳崑은 四維에 대해 王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筋骨血肉이 人身을 유지하기 때문에 四維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濕이 四旁을 관통하기 때문에 四維(筋骨血肉)를 침습하게 되고, 그 결과 筋骨血肉이 번갈아 가면서 무너지는 상태를 陽氣의 고갈이라고 설명하였다<sup>15)</sup>. 吳崑은 “因於氣”에서 氣를 濕熱이 化한 蒸騰之氣로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이니, 章楠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다만 章楠은 四維를 筋骨血肉이나 四肢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四季로 설명하고 있다. 즉, 濕邪의 침습을 받은 상태에서, 辰戌丑未의 四季에도 치유되지 않고 병이 지속되면 陽氣가 고갈되어 죽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四維를 四肢로 인식한 醫家로는 馬蒔와 張介賓 등이 있다. 馬蒔는 四維相代에 대해 手足이 번갈아 가며 서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17)</sup>. 그는 腫의 증상이

발생하는 病機를 脾와 관련시켰고, 그 결과 四維를 脾가 주관하는 四肢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四肢가 붓게 되는 것과 陽氣가 고갈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四肢는 諸陽之本으로 胃氣가 存在하는 곳인데, 病이甚하여 四肢에까지 病變이 나타나면 內外가 모두 막혀 衛氣가 흩어져버리는 징후이므로 陽氣가 고갈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한편, 張琦는 四維를 四時로 이해하였으니, 그는 “四維相代, 陽氣乃竭”을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四時の 氣가 올라타게 되면 陽氣가 고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胡天雄의 경우도 四時로 보고 있으나, 그는 “因於氣”의 氣를 風으로 보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四時를 이해하고 있다<sup>20)</sup>. 『黃帝內經素問校釋』도 胡天雄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四維相代”에 대해서 4종류의 邪氣가 계속 머물러 떠나지 않는 상태로 설명하였고, 이 상태를 陽氣의 고갈과 연계시키고 있다<sup>21)</sup>.

## 3. 考察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因於氣”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氣”를 風으로 본 경우는 바로 앞 문장에서 寒暑濕의 病因을

14)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

“然邪氣漸盛, 正氣浸微, 筋骨血肉, 互相代負, 故云四維相代也. 致邪代正, 氣不宣通, 衛無所從, 便至衰竭, 故言陽氣乃竭也. 衛者陽氣也.”

15)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2.

“四維, 血肉筋骨也. 以是四者維持人身, 故云四維. 相代, 更代而壞也. 濕爲土, 土貫四旁, 故四維皆病. 竭, 盡也. 陽氣乃竭, 謂正氣衰盡也.”

16) 章楠 編注. 靈素節注類編.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06.

“脾土旺于辰戌丑未四季, 爲一歲之綱維者, 脾傷身腫, 而遇四維土旺之時不愈, 至旺氣過而時令相代, 則陽氣竭而死, 故曰四維相代. 陽氣乃竭也. 舊注四維解作筋骨血肉, 或解作四肢, 而筋骨血肉與四肢, 于如何相代? 則全無義理可通矣.”

1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0.

“因于氣證所致者, 凡怒則傷肝, 肝氣有餘, 來侮脾土, 脾土不能制水, 水氣泛溢于四肢, 而爲腫脹之疾. 其手足先后而腫, 此四維之所以相代也. 四維者, 四肢也. 斯時也, 上文所謂內

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者是也, 其陽氣豈不竭盡矣乎?”

1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389.

“四維, 四肢也. 相代, 更迭而病也. 因氣爲腫, 氣道不行也. 四肢爲諸陽之本, 胃氣所在, 病甚而至于四維相代, 即上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之謂, 其爲陽氣之竭也可知.”

19) 張琦 著.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8.

“四維, 四時也. 本陽虛而爲四時寒暑濕氣所乘, 則陽氣竭絕.”

20)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4.

“總的意思是說, 人體陽氣晝行于陽, 夜行于陰, 如果起居如驚, 神氣浮越, 致使陽氣運行, 失其常所, 則外邪可隨時侵襲, 所以列舉因于風, 因于暑, 因于濕, 因于寒, 說明四時之氣, 都可隨時爲病, 傷人陽氣, 如果春夏秋冬, 更迭受邪, 這就是四維相代, 就會召致陽氣乃竭的嚴重后果.”

21)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4.

“以上四種邪氣維系纏綿不離, 相互更代傷人, 就會使陽氣傾竭.”

기술하였기 때문에, 四時의 邪氣로 歸類시키면서 氣를 風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風邪에 의한 질병만이 陽氣가 고갈될 정도로 危重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야기시킨다. 물론 “因於氣, 爲腫”에서 문장을 끝내고, “四維相代, 陽氣乃竭”을 四維가 번갈아 가면서 病을 앓거나, 혹은 재차 邪氣의 침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風邪에 의한 대표적인 증상이 腫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生氣通天論」은 黃帝와 岐伯이 각자 자신의 醫學觀을 기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生氣通天論」의 구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도 있다. 즉, 黃帝는 外邪 가운데 風邪를 제외한 寒暑濕의 세 가지 邪氣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야기 하였다. 이에 岐伯은 風邪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風客淫氣”라고 표현하면서 風邪만 별도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 그리고 四時의 질병을 다시 언급하면서 “春傷於風, 夏傷於暑, 秋傷於濕, 冬傷於寒”이라고 明記하여, 黃帝가 風邪를 언급하지 앓을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氣를 風으로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馬蒔는 氣를 怒氣로 보았으니, 寒暑濕邪의 外感和 怒氣의 內傷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外感의 경우 寒邪·暑邪·濕邪만 제시하고, 內傷의 경우 怒氣만 제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章楠은 氣를 陽氣로 보고, 이 陽氣를 濕이 손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濕邪가 인체를 侵襲할 때 筋을 손상시키는 경우와 陽氣를 손상시키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기전을 통해 濕邪가 筋과 陽氣를 구분해서 손상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王冰은 평소 氣疾을 앓고 있어 陽氣가 虛한 상태에 濕熱이 더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王冰은 이와 같이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濕邪의 침습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는 邪氣는 점점 盛해지고 陽氣는 점점 微微해져 陽氣가 고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상적인 경우 濕邪는 筋을 손상시키지만,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濕邪의

침습을 받게 되면 陽氣 고갈이라는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王冰의 주장은 비교적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陽氣가 허한 경우 濕邪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張琦와 張志聰, 그리고 『黃帝內經太素』에서는 陽氣가 虛한 상태에서 (四時의) 邪氣가 침습을 하게 되면 陽氣가 고갈되어 위중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이 비교적 본 구절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外邪에 있어 寒暑濕邪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생략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물론 黃帝가 3 가지의 邪氣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寒暑濕邪만 기술했고 나머지는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張志聰의 『黃帝內經素問集注』에 近理한 설명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又問曰, 六淫之邪, 只言三氣者, 何也? 曰, 六氣生于五行, 暑熱總屬于火, 陽氣與衛氣各有分別, 風傷衛而兼傷陽, 故另提曰風客淫氣. 經曰, 燥勝則乾. 燥淫之傷, 邪入血液而不傷氣.(또 물어 말하길, “六淫의 邪氣 가운데 다만 寒暑濕의 3가지 氣만 말한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六氣는 五行에서 生하는 것이니 暑와 熱은 모두 火에 속한다. 陽氣와 衛氣는 나뉘어 구별할 수 있는데, 風邪는 衛氣도 손상시키고 陽氣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별도로 ‘風客淫氣’로 제목을 달았다. 經에 이르길 ‘燥가 勝하면 건조해진다.’라고 하였으니, 燥邪의 손상은 그 邪氣가 血液으로 들어가고 氣는 손상시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sup>22)</sup>

위 문장을 정리해 보면, 暑와 火는 同類이기 때문에 하나만 언급하였고, 風邪는 陽氣와 衛氣를 모두 손상시키기 때문에 “風客淫氣”로 따로 설명하였으며, 燥邪는 氣가 아닌 血液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언

22)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0.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四維에 대해서는 筋骨血肉·四肢·四季·四時로 諸家の 의견이 갈려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四維相代”가 “陽氣乃竭”을 설명하는 病理機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앞의 “因於氣, 爲腫”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寒邪·暑邪·濕邪에 의한 病理機轉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因於氣”의 氣는 몇 가지 모순 때문에 風邪나 怒氣로 보기는 힘들다. 營衛藏府之氣로 설명한 張介賓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生氣通天論」이 陽氣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陽氣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因於氣, 爲腫”은 “陽氣의 虛로 인한 경우 붓는 증상이 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陽氣가 虛한 이유를 王冰 처럼 평소에 氣疾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 문장에서 寒暑濕邪에 의한 병리 기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外邪에 의해 陽氣가 손상을 받아 陽氣가 虛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 張志聰은 “因於氣, 爲腫”은 앞의 문장을 총괄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因於氣, 爲腫”을 이와 같이 四時의 邪氣에 침습을 받아 陽氣가 虛해져, 그 결과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四維는 四時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즉, 이미 四時의 邪氣가 侵襲하여 陽虛한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四時의 邪氣 침습을 받게 되면 陽氣가 고갈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이 본 문장을 이해할 경우, 그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因於氣, 爲腫. 四維相代, 陽氣乃竭.

(邪氣의 침습을 받아) 陽氣의 虛가 원인이 되면 붓는 증상이 된다. (이 상태에서) 四時의 邪氣가 다시 陽氣를 침습하게 되면, 陽氣가 이에 고갈되어 버린다.

### III. 結論

“因於氣”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氣”를 風으로 본 경우는 바로 앞 문장에서 寒暑濕의 病因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四時의 邪氣로 歸類시키면서 氣를 風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風邪에 의한 질병만이 陽氣가 고갈될 정도로 危重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氣”를 “怒氣”로 본 주장은 外感의 경우 寒邪·暑邪·濕邪만 제시하고, 內傷의 경우 怒氣만 제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氣”를 陽氣가 虛한 상태로 볼 수 있으니, “因於氣, 爲腫”은 이와 같이 四時의 邪氣에 침습을 받아 陽氣가 虛해져, 그 결과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因於氣, 爲腫”을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四維는 四時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즉, 이미 四時의 邪氣가 侵襲하여 陽虛한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四時의 邪氣 침습을 받게 되면 陽氣가 고갈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
2.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
3. 章楠 編注. 靈素節注類編.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06.
4.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2.
5. 張琦 著.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8.
6. 李克光, 鄭孝昌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p.70-71.
7.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0.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389.
9.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6.
10. 丹波元簡 編.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
11.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3, 24.
1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4.
1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0.